

일본어 오노마토펜 교육현황 분석

강소정*
sjkang328@hanmail.net

<目次>

- | | |
|------------------------|---------------------|
| 1. 서론 | 3.3 설문 결과 및 분석 |
| 2. 선행연구 | 3.3.1 교수자에 대한 지도 분석 |
| 3. 일본어 오노마토펜 교육의 현황 분석 | 3.3.2 학습자에 대한 학습 분석 |
| 3.1 설문 대상과 방법 | 4. 결론 |
| 3.2 설문 문항분석 | |

主語語: 오노마토펜(onomatopoeia), 교수자(instructor), 학습자(learner), 지도(guidance), 학습(learning), 일본어 교육(japanese education)

1. 서론

일본어는 의성어·의태어가 발달된 언어이다. 의성어·의태어 즉 오노마토펜¹⁾은 실제 언어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외국인 일본어 학습자에게는 모국어처럼 자연스러운 사용과 습득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어휘이다.

하지만, 국내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 하듯이 일본어 오노마토펜은 교육현장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며, 중시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²⁾ 앞서 행한 조사연구³⁾에서도 중등 학교·대학교 교육에서의 일본어 오노마토펜 사용실태와 양상을 통하여 학교 교육에서 오노마토펜 교육이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설문을 통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 일본어 오노마토펜이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 신라대학교 일어교육과 강사

- 1) 天沼寧(1989:15)는「擬音語と擬態語との境界がはっきりしない場合があるので、両方をいっしょにして、擬声語・象徴語・写生語あるいは、外来語でオノマトペなどという場合もある。」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하, 본고에서는 모두를 총칭하여「오노마토펜」라는 용어로 사용하겠다.
- 2) 桜井恵子(2003), 李延珍(2006), 李東一(2009), 이하자·송수연(2009), 李楨淑(2010), 탁성숙(2010)
- 3) 강소정·이정숙(2013)「일본어 교육에 있어서의 오노마토펜 실태조사-일본어 관련 시험과의 비교를 통하여」『日本學研究』第38輯

있어서 어떻게 지도·학습되고 있으며, 인식하는지 조사함으로써 오노마토펜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교육현장에서 오노마토펜 교육이 중시 되지 않는 이유와 현황을 파악해 보고, 이에 오노마토펜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재고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일본어 오노마토펜 교육 관련 논문들 중 오노마토펜 교육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生越まり子(1989), 大谷洋子(1989), 渡邊裕子(1997), 加藤扶久美(1998), 秋元美晴(2007) 등이 있다.

生越まり子(1989)는 초급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5권의 교재와 한국의 대학에서 사용되는 교재 1권을 통한 조사에서 초급 학습자에게 가르치는 오노마토펜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본어 학습기간을 4그룹으로 나눈 레포트 조사를 통해 일본어 학습기간이 길수록 오노마토펜 사용이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초급단계 교재에서는 출현 빈도가 낮고, 외국인 학습자가 ‘문어체’로도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나아가 ‘구어체’에서도 사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리고 의음어·의태어는 초급단계에서는 그다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일본어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일본에서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는 한국어와의 대조연구로 의미론, 어휘론의 관점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논하고 있다.

大谷洋子(1989)는 의태어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고 있다. 중~상급 정도의 일본어 학습자를 통한 앙케이트 조사에서도 의태어의 판별은 어렵고, 모두 같아 보인다는 답변을 볼 수 있었다. 의태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의사전달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일본어 교육에서 우선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지적하였으나, 이른 시기에 외우면 좋을 기본어휘로 몇 가지⁴⁾를 소개하고 있다.

渡邊裕子(1997)는 초급·중급 일본어 교재에 나오는 오노마토펜 취급의 조사를 통하여 초급과 중급 이상에서의 일본어 오노마토펜 교육에 대해 논하고 있다. 초급에서는 특히 문형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휘가 중요한 교수 항목이라는 것을 잊기 쉽다. 중급 이상에서는 학습자의 필요에 따르지만, 대학에서 학습하는 유학생의 경우는 전공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휘교육이 달라지므로 오노마토펜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수하지 않으면 학습자는 미학습인

4) 「さっぱり、さっと、きちんと、ほっと、じっと」

채로 남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모든 일본어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오노마토페를 학습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사람과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오노마토페 학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점에 있어서는 필자도 오노마토페 연구에 있어서 같은 입장이다.

加藤扶久美(1998)는 외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중급~상급 수준이 되어서 한꺼번에 많은 의음어·의태어를 습득하는 것은 곤란하며, 오히려 혼란의 원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논하였다.⁵⁾ 또한, 3권의 사전에서 표제어의 득점표를 참고로 초급부터의 이른 학습, 무리 없는 오노마토페 습득의 계획적인 도입을 주장하였다.

秋元美晴(2007)는 학습자에게 어렵게 여겨지는 오노마토페는 일본어 교육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는지 지도와 학습의 입장에서 고찰하고 있다. 『日本語教育ハンドブック』와 『新版日本語教育事典』에서 의성어·의태어가 중요항목으로 위치하고 있다고 제시되어 있으나, 현 교과 과정에는 오노마토페의 취급에 있어서 학습자 레벨과 시기가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일본어 교사는 초급부터 기본적인 오노마토페 도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부수적 요소인 오노마토페 학습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노마토페 학습자에게는 습득이 어려운 항목이며 적극적으로 도입할 때의 문제점과 오노마토페 학습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반론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일본어는 오노마토페가 풍부한 언어이고 일상생활에서 민감하게 쓰여지고 있는 항목으로써 향후 오노마토페 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오노마토페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일본어 수준과 지도시기, 어휘선정에는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오노마토페는 일본어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연구자들마다 초급단계부터의 학습 및 이른 시기의 계획적인 도입을 주장하는 만큼 오노마토페는 일본어 교육에서 배제할 수 없는 항목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오노마토페는 교사의 지도와 학습자의 학습효과를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을 통하여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와 교수자를 중심으로 한국의 일본어 교육에서도 오노마토페가 등한시 되는 이유와 교육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나아가 체계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데도 도움일 될 것이라고 본다.

5) 강소정·이정숙(2013) 前掲 에서도 학교 교재에서의 오노마토페와 일본어 시험 관련과의 비교를 통한 조사에서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

3. 일본어 오노마토편 교육의 현황 분석

3.1 설문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일본어 교육 현장인 중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대학교의 오노마토편 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본어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에 있어서의 구분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조사 대상 분류 및 배부

단위 : 명

구분	교수자		학습자			
	중등학교	중학교	14	중학교	145	
고등학교		31	고등학교 ⁶⁾	222		
대학교	한국인	15	대학교	A학교	229	379
	일본인	18		B학교	55	
				C학교	95	
합계	78(배부) / 76(응답)		746(배부) / 733(응답)			

설문조사에 있어서 중등학교 교수자 설문은 부산, 서울·경기⁷⁾ 지역의 중·고등학교로 전화를 통하여 미리 교사의 협조를 얻어 이메일, 우편 발송, 직접 방문을 실시하였다. 대학교 교수자 설문은 주로 교양 일본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내 교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원어민 교수도 포함시켰다.

학습자 설문은 부산지역 일본어 수업이 행해지고 있는 중학교·고등학교 각각 3개교의 재학생과 대학교 교양일본어 수업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밖에 전공 일본어 학습자도 일부 포함시켜 실시하였다.⁸⁾

6) 조사 학생 수에 있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같은 비율로 계획하였으나, 고등학생들의 많은 설문 참여로 인하여 조사된 설문지를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7) 서울·경기 지역 설문조사는 '2012년 8월 27일~ 9월 26일'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된 「2012 중등일본어 전문 과정」 연수 참석교사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8) 교양일본어 수업에는 다양한 일본어 수준의 학습자가 분포되어 있었다. '교양일본어'의 특성상 대체로 초급수준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몇 가지 설문 항목에서의 비교를 하고자 중급이상~상급 수준의 일본어 전공 학습자 78명을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는 2012년 9월 17일부터 10월 4일에 걸쳐서 진행하였고, 2013년 3월 11일부터 3월 29일에 다시 보충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모두 회수되었으나, 그 중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그리하여 설문 분석은 각각 교수자용 설문지 78부 배부 중 76부(97.4%), 학습자용 설문지 746부 배부 중 733부(98.2%)의 응답으로 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문항을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3.2 설문 문항분석

본 연구조사에서 설문지 문항은 일본어 교육현장에서 오노마토펜이 어떻게 지도·학습되고 필요한지에 대한 실태 및 니드 조사로서 다음과 같이 교수자와 학습자 두 종류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먼저, 교수자용 설문에 있어서는 교사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으로「성별, 연령, 근무지(중·고·대)와 설문 1문항의「교육경력」을 알아보았다. 설문 2·2-1·3은 오노마토펜 지도의 실태를 알아보고자「지도경험 유무, 지도방법, 수업 교재에서의 비중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 4·5·5-1은 오노마토펜 지도의 니드에 관한 조사로서「지도시기, 지도의 필요성, 필요성 응답에 따른 이유」를 조사하였고, 끝으로 설문 6에서는 「오노마토펜 교수법」⁹⁾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학습자용 설문에 있어서는 설문 1·2·3·3-1에서 학습자의 배경조사에 관한 질문으로 「학습 수준, 유학경험, 일본어 관련시험 응시유무, 취득급수」를 조사하였다. 설문4·5·5-1·6·7·7-1은 오노마토펜 학습이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로서「학습경험 유무, 수업 외 학습경험 유무, 그에 따른 이유, 학습방법, 사용유무, 비사용 이유」를 조사하였다. 설문 8·9·9-1에서는 오노마토펜의「적절한 학습시기, 학습의 필요성, 필요성 응답에 따른 이유」를 통해 오노마토펜 학습의 니드를 조사하였다.

3.3 설문 결과 및 분석

3.3.1 교수자에 대한 지도 분석

응답 교수자는 중등학교 44명(중학교 14명, 고등학교 30명), 대학교 32명(한국인 15명, 일본인 17명)으로 총 76명이다. 이 중 전체 교수자의 인적사항을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9) 「오노마토펜 교수법」에 대한 의견은 금후 교육방안 연구에 반영하고자 한다.

<표 2> 교수자 인적사항

단위 : 명(%)

	성별		연령				교육경력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1년 미만	1~5년	6~10년	11~15년	16년 이상
중등학교	9	35	3	24	15	2	1	14	12	13	4
	20%	80%	7%	54%	34%	5%	2%	32%	27%	30%	9%
대학교	9	23	1	13	13	5	2	11	8	9	2
	28%	72%	3%	41%	41%	16%	6%	35%	25%	28%	6%
전체	18	58	4	37	28	7	3	25	20	22	6
	24%	76%	5%	49%	37%	9%	4%	33%	26%	29%	8%

전체를 보면 성별에 있어서 여성이 76%로 남성 24%보다 3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으로는 30대가 49%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37%인 40대이다. 교육경력에 있어서는 1~5년이 33%로 가장 많이 분포하며, 11~15년 29%, 6~10년 26%의 순서를 보인다. 전체 교수자의 인적사항 분포는 중등학교,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분포순서와 비율을 보이고 있다.

(1) 오노마토펜 지도의 실태조사

오노마토펜 지도의 실태에 있어서 「지도경험 유무, 지도방법, 수업 교재에서의 비중인식」 세 가지 문항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오노마토펜 지도경험 유무 - (설문2)

단위 : 명(%)

		① 예	② 아니요	합계
중등학교	응답지수	15	29	44
	백분율(%)	34	66	100
대학교	응답지수	27	5	32
	백분율(%)	84	16	100
전체	응답지수	42	34	76
	백분율(%)	55	45	100

위 <표 3>은 일본어 수업 중 오노마토펜 지도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결과이다. 교수자들은 전체적으로 ‘①예’가 55%, ‘②아니요’가 45%의 응답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등학교에서는 66%가 지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대학교에서는 84%가 지도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것은 앞의 연구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오노마토펜이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도가 소홀해졌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학에서는 보다 다양한 일본어 수준의 학습자로 인해 중등보다는 오노마토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표 4> 오노마토펜 지도방법 - (설문2-1)

단위 : 명(%)

		① 발음 듣고 따라 읽기	② 한국어 뜻 제시하기	③ 그림, 행동 보여주기	④ 예문 제시하기	⑤ 기타	합계
중등학교	응답자수	6	14	7	4	2	33
	백분율(%)	18	43	21	12	6	100
대학교	응답자수	14	14	15	19	2	64
	백분율(%)	22	22	23	30	3	100
전체	응답자수	20	28	22	23	4	97
	백분율(%)	20	29	23	24	4	100

앞의 <표 3>에서 오노마토펜 지도 경험이 있는 경우에 답하는 문항으로 오노마토펜 지도방법에 관한 결과표이다. 중등학교에서는 ‘②한국어 뜻 제시하기’가 43%이고, 대학교에서는 ‘④예문 제시하기’가 3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적 분포를 보면 ‘①발음 듣고 따라 읽기’ 20%, ‘②한국어 뜻 제시하기’ 29%, ‘③그림, 행동 보여주기’ 23%, ‘④예문 제시하기’ 24%와 같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그 중, ‘②한국어 뜻 제시하기’가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일본어 오노마토펜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학습자의 모국어로 뜻을 말하고 외우는 식의 암기교육이 주로 행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대학교 교수자 응답 ‘합계’ 64명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조사대상 32명 교수자 중에서 지도 경험이 있는 27명이 응답한 것으로 복수응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중등보다는 대학에서 보다 다양한 방법의 지도가 시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예문은 학생들이 사전에서 찾아서 써오게 함, 상황제시’ ‘문법 수업 시 상태부사 설명하면서 가르친다’의 기타 의견이 있었다.

<표 5> 수업 교재에서의 오노마토페 비중인식 - (설문3)

단위 : 명(%)

		① 많다	② 보통이다	③ 그다지 없다	④ 찾아보기 어렵다	⑤ 기타	합계
중등 학교	응답자수	0	2	22	20	0	44
	백분율(%)	0	5	50	45	0	100
대학교	응답자수	1	4	18	8	1	32
	백분율(%)	3	13	56	25	3	100
전체	응답자수	1	6	40	28	1	76
	백분율(%)	1	8	53	37	1	100

수업 시 사용하는 교재에서 오노마토페는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중인식에 있어서 <표 5>와 같이 중등, 대학교 모두 ‘③그다지 없다’가 각 50%, 56%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등에 있어서 ‘④찾아보기 어렵다’는 45%로 대학교에서의 25%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오노마토페가 수업 교재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함으로써 교육에서도 소홀히 다루어지게 되는 부분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문항의 오노마토페 실태조사를 통해 중등 교수자들은 오노마토페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으며, 교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비중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학교 교수자들은 미비하게나마 가르치는데 다양한 지도를 위한 시도를 보이지만, 역시 비중 인식에 있어서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 일본어 교육에서는 오노마토페가 적극적으로 취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오노마토페 지도의 니드조사

오노마토페 지도의 필요에 있어서「지도시기, 지도의 필요성, 필요성 응답에 따른 이유」세 가지 문항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오노마토페 지도시기 - (설문4)

단위 : 명(%)

		① 입문기 ~초급	② 초급 후반	③ 중급	④ 중급후반 ~상급	⑤ 기타	합계
중등학교	응답자수	10	19	12	3	0	44
	백분율(%)	23	43	27	7	0	100
대학교	응답자수	10	7	10	1	4	32
	백분율(%)	30	21	30	3	15	99
전체	응답자수	20	26	22	4	4	76
	백분율(%)	26	34	29	5	5	99

일본어 오노마토페 지도는 언제부터가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표 6>과 같이 지도시기를 보이고 있다. 중등에서는 ‘②초급후반’을 43%, 대학에서는 ‘①입문기~초급, ③중급’을 각 30%로 적절한 시기로 생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초급후반’이라는 응답이 34%로 가장 많이 분포되며, 중급후반부터는 급격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급단계까지는 오노마토페 지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를 볼 때, 학습자의 일본어 능력에 따라 오노마토페 교육, 오노마토페 어휘도 달라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¹⁰⁾ 그리고 ‘⑤기타’¹¹⁾로는 따로 지도시기를 정하지 않고, 적절한 때에 지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7> 오노마토페 지도의 필요성 - (설문5)

단위 : 명(%)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기타	합계
중등학교	응답자수	1	27	14	0	2	44
	백분율(%)	2	61	32	0	5	100
대학교	응답자수	5	17	8	0	2	32
	백분율(%)	16	53	25	0	6	100
전체	응답자수	6	44	22	0	4	76
	백분율(%)	8	58	29	0	5	100

10) 玉村(1989) 연구에서도 초급용 오노마토페, 중급용 오노마토페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11) ‘일본어 수준과 상관없음’ ‘初級では日本語の音声に慣れたり、親しみを持たせるため、中級以上では、日本語らしい表現を身につけたり自国のオノマトペとの比較から韓日文化比較へのきっかけとして有効だと思います。’ ‘いつからでもいいが、ます形を終えたぐらいなら使用するたのしみもでてくるのでいいと思う。’ ‘会話などに出てきた時に、自然なタイミングで。’ 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본어 오노마토펜 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결과표이다.

‘②필요하다’는 중등 61%·대학 53%로 오노마토펜 지도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다. 중등에 있어서 61%가 ‘②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반해, 앞의 <표 3>지도경험 유무에서는 66%가 ‘오노마토펜 지도한 적이 없다’는 응답을 보였다. 오노마토펜 지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수업에서는 행해지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④필요하지 않다’ 응답은 전체 0%이다. 지도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 않지만, 어휘교육에서 오노마토펜은 배제할 수 없는 항목임을 인식하고 있다. ‘①반드시 필요하다’에 있어서는 중등에서 2%인 반면, 대학에서는 16%로 보다 강한 필요성 인식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설문 5-1의 문항으로 위의 <표 7>오노마토펜 지도의 필요성 응답에 따라 작성한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① 반드시 필요하다’ 응답으로는 주로 언어, 어휘적인 면에서의 이유를 들고 있다.¹²⁾

‘② 필요하다’ 응답으로는 일본어 표현적인 면과 실생활 면에서의 이유가 다수이다.

중등학교 응답자(20명) 중, ‘풍부한 언어생활(표현)’ 5명, ‘일생활 자주 사용’ 5명, ‘재미와 흥미유발’ 5명, 그 외, 생동감 있는 일본어 구사, 함축적인 표현 가능, 원어민과의 대화나 문화 이해를 말하고 있다. 대학에서 응답자는 ‘이해력 높이는 효과, 사용함으로써 전달력이나 표현의 구체성, 확실한 상황 전달’과 같이 표현 전달의 유용성에 대해 가장 큰 이유를 들고 있다. 일본인 교수자도 풍부한 표현과 회화에서의 필요 등을 지적하고 있다.¹³⁾

‘③ 그저 그렇다’ 응답으로는「다른 내용과 연결해서 가르칠 계기가 별로 없음, 단어, 문형 배우는데 급급함, 문형이나 문법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공식적인 자리 적절치 못함,

12) · 일본어회화나 문장중에는 고급과정으로 올라갈수록 빈번히 등장하기 때문

- 오노마토펜에 「~する」가 붙어 동사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어휘적인 면에서 필요
- 일본인들의 언어습관과 문화적인 면의 이해에 있어서도 오노마토펜의 지도가 필요
- 日本語の会話によく出てくるから。非言語に近い。発音しやすい。
- 語彙教育の面から、他の語彙よりも音から発生した単語がより容易に興味深し学習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13) · 実生活でよく使われるものは初級でも自然に取り入れても学習者はよろこぶし、授業の雰囲気は明るくなる。

- 自然な日本語の習得をかんがえた場合、会話によくでてくるため。
-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観点から考えると「必ず」ではない。ただし、オノマトペを利用することにより表現の幅が広がるから、また「音」も楽しく、学習の生活化にもつなげられる。
- 日本人との会話の中には少なからず入ってくるものなので、多くはないとしても、知っておいた方がよいと思います。
- 日本語の語彙を豊かにするため。

어렵고 시험에 안 나옴, 일본어 실력 향상 후 지도해도 될 것 같음,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음, 필요에 따라 가르침'의 이유를 들고 있으며, '⑤ 기타' 로는「경우에 따라 필요할지도 모르나 실제로는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언급하였다.

「반드시 필요하다·필요하다」는 오노마토펜 어휘 자체의 특징에서 긍정적인 면을 들고 있으며,「그저 그렇다」는 현재 일본어 교육에서 교육되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교수자들은 지도실태에 있어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으며 교육비 중도 낮지만, 니드 조사에서는 필요하다는 상반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2 학습자에 대한 학습 분석

학습자 배경 조사로 <표 8>학습수준, <표 9>유학경험, 일본어 시험 응시여부, 취득급수를 살펴보았다.

<표 8> 학습자 학습수준 - (설문1)

단위 : 명(%)

		① 입문기 ~초급	②초급후반	③중급	④ 중급후반	⑤ 상급	합계
중등학교	응답자수	273	68	18	2	0	361
	백분율(%)	76	19	5	0	0	100
대학교	응답자수	133	103	77	43	16	372
	백분율(%)	36	28	21	11	4	100
전체	응답자수	406	171	95	45	16	733
	백분율(%)	55	23	13	6	2	99

위 표에서 학습자 학습수준은 학습자 자신이 현재 일본어를 학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어 수준에 체크하는 문항이므로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¹⁴⁾ 중등에서는 '①입문기~초급'이 76%로 가장 많이 차지하며, 대학에서는 교양일본어 수업이라는 점에서 초급레벨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14) '일본어 학습기간'으로 보기에는 같은 수준을 반복해서 학습한 기간도 곱칠 수 있다고 보았다.

<표 9> 학습자 유학경험 및 일본어 관련 시험응시 유무 - (설문2~3-1)

단위 : 명(%)

	유학경험		시험응시 유무		취득 급수				
	① 예	② 아니요	① 예	② 아니요	1급 (N1)	2급 (N2)	3급 (N3~4)	4급 (N5)	JPT
중등학교	1	360	5	356	-	-	2	2	-
	0%	100%	1%	99%	-	-	1%	1%	-
대학교	38	334	123	249	49	32	18	2	11
	10%	90%	33%	67%	13%	9%	5%	0%	3%

중등에서는 유학경험이 없으며, 일본어 관련시험을 거의 응시하고 있지 않다. 취득 급수에 있어서 4급은 중·고등학교에서 각 한명, 3급은 고등학생 2명이다. 대학에서는 유학경험이 10%정도 있으며, 많은 학습자들이 일본어 자격증 취득을 필요로 하고, 다양한 급수를 취득하고 있으며 JPT도 400점대부터 900점대까지 폭 넓은 점수대를 보인다. 15) 여기에서 1급(49명), 2급(32명), JPT 700점 이상(6명)을 ‘상급자’로 분류하여 총 87명을 따로 분석하고 이하, 설문 문항 분석에서 전체 학습자와 함께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오노마토펜 학습의 실태조사

<표 10> 오노마토펜 학습경험 유무 - (설문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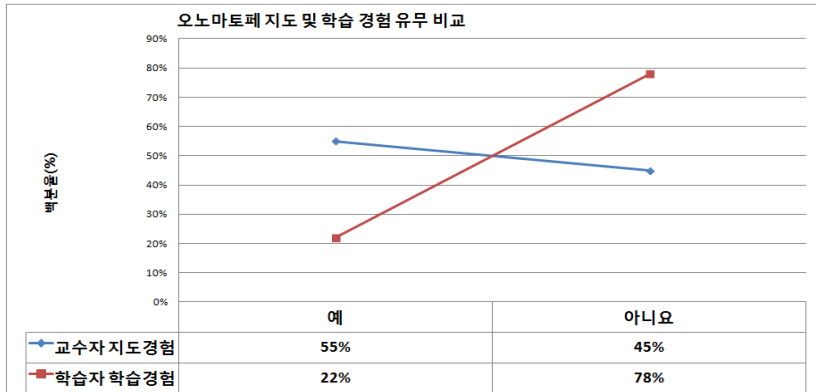
단위 : 명(%)

		① 예	② 아니요	합계
중등학교	응답자수	48	313	361
	백분율(%)	13	87	100
대학교	응답자수	113	259	372
	백분율(%)	30	70	100
전체	응답자수	161	572	733
	백분율(%)	22	78	100

위 <표10>은 학교 수업에서 일본어 오노마토펜을 학습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결과표이다. 중등·대학 모두 ‘②아니요’에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앞의 <표 3>지도

15)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는 대학 교양일본어 학습자도 일부 포함하지만 대부분이 일본어 전공 학습자이다.

경험 유무와 비교해 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오노마토펜 지도 및 학습경험 유무 비교

교수자의 55%는 ‘오노마토펜 지도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나, 학습자는 22%만이 ‘학습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대부분의 학습자는 학습 경험이 없음과 동시에 오노마토펜을 학습했다는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낮은 비율을 보인다고 판단된다. 한편, 상급자는 45%가 학습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1> 수업 외 오노마토펜 학습경험 유무 - (설문5)

단위 : 명(%)

		① 예	② 아니요	합계
중등학교	응답자수	36	325	361
	백분율(%)	10	90	100
대학교	응답자수	85	287	372
	백분율(%)	23	77	100
전체	응답자수	121	612	733
	백분율(%)	17	83	100

학교 수업 외에 일본어 오노마토펜을 학습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①예’는 중등 10%, 대학 23%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앞의 <표 10>에서 학교에서의 학습 경험 유무에서 ‘①예’ 22% 보다도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 수업 외에 따로 학습 경험은 거의 없다고 보며, 이것은 오노마토펜 뿐만 아니라, 전체적

으로 일본어 학습이 잘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다. 반면, 상급자들은 ‘수업 외 학습 경험이 있다’는 57%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인적으로 보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표 12> 수업 외 오노마토펜 학습경험 이유 - (설문5-1)

단위 : 명(%)

		① 일본어자격증 시험 준비	② 일본유학 시험 준비	③ 일본어 학원 수업	④ 일본매체 접촉 (만화, 드라마, 광고등)	⑤ 기타	합계
중등 학교	응답자수	3	0	5	29	8	45
	백분율(%)	7	0	11	64	18	100
대학교	응답자수	40	7	27	48	11	133
	백분율(%)	30	5	20	36	8	99
전체	응답자수	43	7	32	77	19	178
	백분율(%)	24	4	18	43	11	100

앞의 <표 11>에서 수업 외의 학습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답하는 문항으로 복수 응답이 가능하다. 중등에서는 ‘④일본매체 접촉’이 64%로 가장 높으며, 대학의 경우도 36% 차지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④일본매체 접촉’이 43%로 가장 높다. 그 만큼 학습자들이 일본 매체를 많이 접하고 있으며, 매체를 통해 오노마토펜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도 ‘④일본매체 접촉’이 36%를 차지하지만, ‘①자격증 시험 준비’ 30%인 점을 보면, 학교 수업만으로 오노마토펜 습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로는 ‘방과 후 학습지, 과외, 외국 사이트, 취미생활 등의 경로를 들고 있다.

<표 13> 오노마토펜 학습방법 - (설문6)

단위 : 명(%)

		① 무조건 암기	② 모국어 어감과 비교	③ 형태 파악	④ 연상하기	⑤ 기타	합계
중등 학교	응답자수	145	87	20	81	28	361
	백분율(%)	40	24	6	22	8	100
대학교	응답자수	115	120	28	90	19	372
	백분율(%)	31	32	8	24	5	100
전체	응답자수	260	207	48	171	47	733
	백분율(%)	35	28	7	23	6	99

새로운 일본어 오노마토펜을 접했을 때 학습자들은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관한 질문이다. 위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암기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중등은 ‘①무조건 암기’ 40%, 대학은 ‘②모국어 어감과 비교’ 32%를 차지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①무조건 암기(35%)>②모국어 어감과 비교(28%)>④연상하기(23%)’ 순서를 보인다. ‘무조건 암기’는 학습자가 그때그때 단순암기로 학습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모국어 어감과 비교’에서는 한국어에서도 오노마토펜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니 양국의 어감을 서로 비교하여 학습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상급자 학습 방법으로는 ‘④연상하기(40%)>②모국어 어감비교(25%)>①무조건 암기(16%)>③형태과약(10%)’ 순서를 보이고 있다. 상급자는 암기에서 벗어나 어휘의 연상,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학습자의 레벨에 따라 오노마토펜 교육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기타 ‘배우지 않았다. 접한 적이 없다’ 응답이 대부분이며, ‘반복듣기, 상황 인식, 문장으로 외운다.’ 등이 있었다.

<표 14> 오노마토펜 사용유무 - (설문7)

단위 : 명(%)

		① 자주 사용한다	② 가끔 사용한다	③ 사용하지 않는다	④ 필요성을 못 느낀다	⑤ 오노마토펜이 있는 것을 몰랐다	합계
중등 학교	응답지수	0	37	98	13	213	361
	백분율(%)	0	10	27	4	59	100
대학교	응답지수	19	151	90	15	97	372
	백분율(%)	5	41	24	4	26	100
전체	응답지수	19	188	188	28	310	733
	백분율(%)	2	26	26	4	42	100

실제 일본어 회화에서 오노마토펜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용유무의 질문이다. 중등은 ‘⑤있는 것을 몰랐다’가 59%로 높은 반면, 대학은 ‘②가끔 사용한다’가 41%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상급자는 ‘②가끔 사용한다’ 67%와 ‘①자주 사용한다’ 16% 로 사용에 있어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

반면, ‘③사용하지 않는다’ 26%, ‘④필요성을 못 느낀다’ 4%에 응답한 오노마토펜 비사용에 대해 작성된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 <표 15>과 같이 정리된다.

<표 15> 오노마토편 비사용 응답 이유 - (설문7-1)

단위 : 명(%)

		몰라서	회화 안 한다	배운 적 없다	쓸 일이 없다	어렵다	그 외	합계
중등 학교	응답자수	8	16	9	8	2	6 ¹⁶⁾	49
	백분율(%)	16	33	18	16	4	12	99
대학교	응답자수	28	12	1	13	3	8 ¹⁷⁾	65
	백분율(%)	43	18	2	20	5	12	100
전체	응답자수	36	28	10	21	5	14	114
	백분율(%)	32	25	9	18	4	12	100

중등, 대학 학습자의 공통응답으로는「몰라서, 회화 안 한다, 배운 적 없다, 쓸 일이 없다, 어렵다」였고,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학습자의 학습 실태에 있어서 오노마토편의 학습 경험은 거의 없으나, 일본매체를 통해서나 일본어 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해 학습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암기 위주로 많이 행해지며 오노마토편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일본어 학습수준이 높은 상급자 일수록 수업·수업 외 학습 경험, 사용유무에 있어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전체 학습자와 다른 순서 비율을 보이며, 일본어 수준이 높을수록 오노마토편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오노마토편 학습의 니드조사

<표 16> 오노마토편 학습시기 - (설문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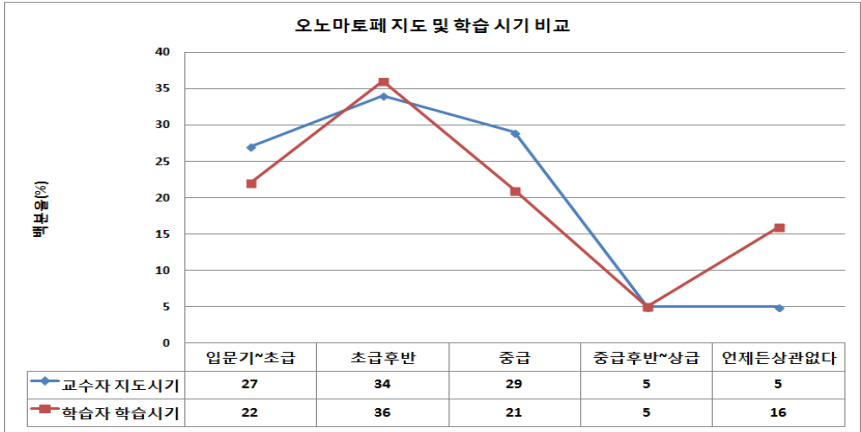
단위 : 명(%)

		①입문기 ~초급	② 초급후반	③ 중급	④ 중급후반 ~상급	⑤ 언제든 상관없다	합계
중등학교	응답자수	64	137	79	12	69	361
	백분율(%)	18	38	22	3	19	100
대학교	응답자수	97	125	75	24	51	372
	백분율(%)	26	34	20	6	14	100
전체	응답자수	161	262	154	36	120	733
	백분율(%)	22	36	21	5	16	100

16) 그밖(2명), 교과서 나오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아도 말 통한다, 언제 사용할지 모르겠다, 이상한 것 같다.
 17) 익숙하지 않다·낯설다·생소하다(4명), 알 필요가 없다, 교과서 나오지 않는다, 실수하면 어쩌나 망설여진다, 굳이 사용 이유 모르겠다.

오노마토펜 학습 시작의 적절한 시기에 대한 질문에 ‘②초급후반’이 36%를 차지하고 있고, 중급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학습시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본다.

위의 <표 16> 학습시기를 앞의 <표 6> 지도시기와 비교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오노마토펜 지도 및 학습시기 비교

교수자 학습자 모두 지도와 학습 시작의 적절한 시기로 ‘②초급후반’을 다수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급단계까지는 지도·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본다. ‘④중급후반~상급’으로 는 5%로 급격히 낮은 비율을 보인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일본어 어휘 실력이 쌓였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오노마토펜 지도·학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습자에 있어서 는 ‘⑤언제든 상관없다’는 인식이 오히려 16%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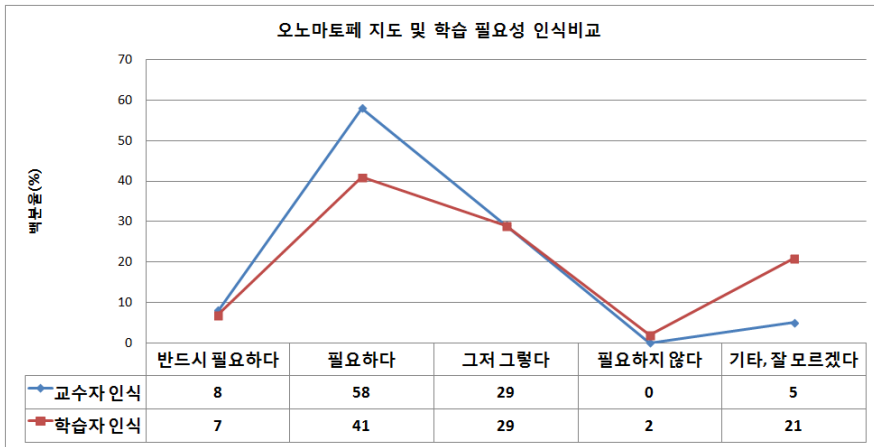
교수자는 초급후반>중급>입문기~초급을 보이는데 반해, 학습자와 상급자는 초급후반>입 문기~초급>중급의 순서를 보인다. 이 점을 볼 때 교수자보다는 학습자들이 보다 빠른 시기의 오노마토펜 교육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 17> 오노마토페 학습의 필요성 - (설문9)

단위 : 명(%)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합계
중등 학교	응답자수	6	113	120	17	105	361
	백분율(%)	2	31	33	5	29	100
대학교	응답자수	43	187	93	2	47	372
	백분율(%)	12	50	25	0	13	100
전체	응답자수	49	300	213	19	152	733
	백분율(%)	7	41	29	2	21	100

일본어 오노마토페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으로, 전체분포에서 ‘②필요하다’가 41%, ‘③그저 그렇다’가 29%를 차지한다. ‘⑤잘 모르겠다’ 21%는 오노마토페 필요성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을 앞의 <표 7>지도의 필요성과 함께 비교해 보면,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오노마토페 지도 및 학습의 필요성 비교

‘①반드시 필요하다, ②필요하다’는 오노마토페의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수자의 인식이 높으나, ‘④필요하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의 부분은 학습자의 인식이 조금 더 높게 보인다. 이것은 대부분의 학습자는 아직 오노마토페의 인식뿐만 아니라 사용에 있어서의 니드 인식이 교사보다 낮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상급자에 있어서는 60%의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이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28%로 교수자보다 월등하게 높은 필요성 인식을 보인다. 특히 일본어 학습 능력이 높을수록 오노마토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은 <설문 9-1>의 문항으로 앞의 <표 17>학습의 필요성 응답에 작성된 이유를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①반드시 필요하다 ②필요하다’의 응답 이유로는 「표현·생활·흥미 면으로 볼 수 있다. 풍부하고 세부적인 느낌, 니앙스 전달, 표현력 향상, 효과적인 전달·일상생활에 많이 사용, 무의식적으로 사용, 일상대화, 그 나라 문화 익힘·위우기 쉽고 재미있음, 어감의 귀여움, 흥미」와 같은 의견이었다.

‘③그저 그렇다’는 「학습의 어려움, 잘 안 외워짐·회화 시 사용하지 않음, 실생활 필요성 느끼지 못함, 사용하지 않아도 회화 가능하고 불편함 못 느낌·안 배움, 모름, 중요하지 않음」과 같은 이유였다.

‘④필요하지 않다’는 「존재하는지 몰랐고, 일상 대화에 문제가 없으며, 사용할 일이 없다 몰라도 된다」는 의견이었고, ‘⑤잘 모르겠다’는 항목과 같이 오노마토편 모른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며「배우지 않아서, 사용 안한다, 필요성 모른다」는 이유가 있었다.

4. 결론

이상으로 일본어 교육현장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오노마토편 사용실태와 니드인식을 통하여 오노마토편 교육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교수자는 학교 교육에서 오노마토편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지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습자도 학습 경험은 낮고 오노마토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학습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반응과 빠른 시기의 교육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교수자·학습자는 모두 오노마토편의 유용함과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으나, 그에 대응하는 오노마토편 교육은 현실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교수자는 현재 일본어 교육 여건상의 문제로 소홀히 취급하고 있으며, 학습자는 미학습인체로 오노마토편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오노마토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며, 오노마토편

특징을 살린 체계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參考文獻】

- 秋元美晴(2007)「日本語教育におけるオノマトペの位置づけ」『日本語学』Vol.26
天沼寧(1989)「擬音語・擬態語」『日本語教育』68号
生越まり子(1989)「日本語の擬音・擬態語授業上の問題点-朝鮮語韓国語を母語とする人々に対して-」『日本語教育』68号
大谷洋子(1989)「擬態語の特徴」『日本語教育』68号
加藤扶久美(1998)「日本語教育における擬音語・擬態語の基本語選定の試み」富山大学教育実践研究指導センター紀要 No.16 : 1-9
桜井恵子(2003)「擬音語・擬態語の習得に関する研究」『日本学報』第54輯
玉村文郎(1989)「日本語の音象徴語の特徴とその教育」『日本語教育』68号
渡邊裕子(1997)「日本語教育におけるオノマトペの扱いについての一考察」『学校教育学研究』兵庫教育大学学校教育研究センター 第9巻
강소정·이정숙(2013)「일본어 교육에 있어서의 오노마토펜 실태조사-일본어 관련 시험과의 비교를 통하여-」『日本學研究』第38輯
李東一(2009)「日本語のオノマトペにおける意味と形態の相関についての研究」『日本研究』第40號
李延珍(2006)「의성어·의태어의 최소대립쌍을 이용한 일본어 교육」『日語教育』第38輯
李楨淑(2010)「日本語の擬音語・擬態語に関する一考察-日本語教育の立場から-」『日語日文学』第47輯
이하자·송수연(2009)「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에 나타난 의성어·의태어」『日本語教育』第48輯
탁성숙(2010)「일본어의 의성어·의태어에 관한 고찰-일본어교육의 관점에서-」『日本研究』Vol.40

논문투고일 : 2013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3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3년 07월 09일
2차 수정일 : 2013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7월 21일

〈要旨〉

일본어 오노마토펜 교육현황 분석

본 연구는 일본어 교육현장에서의 오노마토펜 교육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중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일본어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오노마토펜가 어떻게 지도·학습되고 필요로 인식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수자는 학교 교육에서 오노마토펜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지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습자도 학습 경험이 없거나 오노마토펜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학습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교수자·학습자 모두 적절한 지도·학습 시기로 ‘초급후반’을 지적하고 있으나 보다 이른 시기인 ‘입문기~초급’ 단계에서의 교육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수자·학습자는 모두 오노마토펜 사용의 유용함과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오노마토펜 교육은 현실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오노마토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며, 오노마토펜의 특징을 살린 체계적인 교육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nalysis of Education Situation on Japanese Onomatopoeia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use of Onomatopoeia in Japanese education. A research survey was conducted by learners and Instructors in several secondary schools and universities. This survey focuses on how Onomatopoeia is taught and learned in the class, and how Onomatopoeia is recognized as necessary.

According to results, even though instructors did not actively deal with the Onomatopoeia in class it was sure that the need for guidance were highly recognized. Learners has rarely recognized the Onomatopoeia but they showed a positive reaction in need of learning. Instructors and learners wanted the Onomatopoeia treated in the early beginning stage but some of them wanted it teated at earlier stage.

Although both instructors and learners are aware of the need and usefulness in the use of Onomatopoeia, Onomatopoeia education is not sufficient in reality. Therefore, Onomatopoeia education should be actively practised in the class and pragmatic education approach to highlight the advantage of Onomatopoeia is necessary.